

광주시 118곳 780ha 도시정비사업 편다

2025년 완공 목표 ... 다음달 최종 결정고시

주거환경 65곳·재개발 29곳·재건축 17곳

도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광주시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하는 도시정비계획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대상지구는 모두 118곳에 면적은 780.4ha(773만여㎡)에 달한다.

도시정비 사업은 노후지역이나 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확정되는 정비예정 구역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2011년 수립 당시에는 123곳(826ha)이었으나 동구 백화, 지산 주거환경개선지구 등 4곳이 완료되고 산수2동 등 3곳은 추진 불가로 해제돼 118곳으로 조정됐다.

사업 예정지는 주거환경구역이 65곳, 주택재개발 29곳, 주택 재건축 17곳, 도시환경정비 7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31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27곳, 서구 24곳, 광산구 29곳, 북구 16곳이다. 현재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곳은 주택재개발 27곳 등 44곳에 달한다.

하지만, 추진위 구성 뒤 착공까지 6~7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완공 시점은 2025년이 다 돼야 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월 정비예정구역 용역(사업비 2억6000만원)에 들어가 전문가 자문, 주민 설명회와 의견수렴, 관련 실과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서구 풍암동과 북구 삼각동 등 양호한 단독주택지는 양질의 주택지를 유지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동구 계림동과 북구 두암동 등 노후 단독주택지는 지형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 및 주거지 특성과의 조화를 감안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지도 광산 쌍암동 등 양호한 곳은 주변 단지와의 계획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고 남구 방림동 등 노후한 곳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노수침)로 지정된

300가구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대지면적 1만㎡ 이하)은 재건축 시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동 균열로 주민이 퇴거한 복구평화맨션을 고려한 조치로 일정부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 정비사업 추진이 한결 쉽게 됐다.

또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계림동 일원은 학교시설 필요권역으로, 신가와 광천구역은 학교시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환경 친화적이고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 추진, 국가 및 시정 문화재 원형보존 원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대 방안 등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큰 밑그림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 행정절차 진행여부 등을 고려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 옥천농협, 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선정

이달말 ‘한눈에 반한 쌀’ 5t 첫 수출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해남 옥천농협이 최종 선정됐다. 옥천농협은 이달 말 5t의 쌀을 중국에 첫 수출한다.

전남도는 14일 “해남 옥천농협을 비롯한 전국 6개 업체가 중국 검역기관의 현지실사를 통해 대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근 승인 고시됐다”고 밝혔다.

선정 업체는 해남 옥천농협을 비롯해 경기 이천 남부농협, 강원 철원 동송농협, 충남 서천군농협, 충북 청주 광복영농조합, 전북 군산 (유)제화다.

농식품부에서는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선정된 6개 업체 합동으로 상해 지역에 1월 말 첫 수출을 목표로 포장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첫 수출 일정에 맞춰 수출용 쌀 포장재 중국어 라벨 제작과 쌀 위생검사를 완료하

고,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 및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내 바이어 발굴과 판매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남 옥천농협에서는 첫 수출 물량으로 5t을, ‘한눈에 반한 쌀’ 5kg 소포장 제품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눈에 반한 쌀”은 농식품부가 2003년부터 주최한 전국 12대 브랜드쌀 평가에 2013년까지 10회 선정됐고 이 가운데 최우수상을 3회 수상하는 등 맛과 품질을 인정받은 브랜드로 중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제 중국에 전남쌀 수출길이 열린 만큼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을 강조한 전남의 고품질·유기농쌀 위주로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식기자chadol@kwangju.co.kr

고성능 수제차 제조업체 드마크로스

4월 영암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입주

17억짜리 슈퍼카 도청 전시

수제차 제조업체인 드마크로스가 오는 4월 완공 예정인 영암 삼포 자동차 튜닝밸리 내 연구지원센터에 입주할 예정이다. 드마크로스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남도가 추진중인 고성능 자동차 기술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14일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의 아들이자 드마크로스의 대주인 허자홍 H-Plus 홀딩스 대표가 이낙연 전남지사과 면담 후 솔라시도 기업도시 삼포지구 내 튜닝밸리 입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드마크로스는 튜닝밸리 내에 장기적으로 수제 슈퍼카 제작라인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드마크로스 외에 47개 업체가 연구지원센터 입주 의향을 보이

고 있다.

허 대표는 투자 의향을 밝힌 뒤 최고 속도 시속 370km,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이 3.1초인 17억짜리 슈퍼카 에픽 GTI를 전남도청 1층 전시장에 오는 3월말까지 전시하도록 했다. 슈퍼카 에픽 GTI는 드마크로스가 개발·제작한 차로 허 대표가 디자인과 설계를 맡았다. 차체 중량은 1,450kg, 최고 출력은 845마력이며, 6단 수동 변속기로 배기량은 5400cc로 V형 8기통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이다.

2011년 두바이 모터쇼, 2012년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에 참가했고 2015년 TV 프로그램 탐기어코리아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윤현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개방형 감사관 내부인사 첫 임용되나

4급서기관 등 2명 추천

전남도 개방형 감사관(3급)에 내부 인사가 처음으로 임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개방형 감사관 관선발심의회위원회는 현 장광구 감사관의 임기가 오는 23일로 끝날에 따라 후임 감사관을 공모해 지난 12일 서류전형에 합격한 3명을 대상으로 면접했다.

면접을 본 3명은 감사원 출신, 회계사, 전남도 4급 서기관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이 가운데 전남도 4급 서

기관 등 2명을 이날 인사위원회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원회는 금주 중 이들의 서류와 면접결과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임용권자인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추천한다.

이 지사는 다음주 중 임용자를 결정한다. 도는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2011년 이후 감사원 출신들을 임용해왔다.

따라서 도청 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청 내부인사가 감사관에 임용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윤현식기자chadol@kwangju.co.kr



“남도로 관광 오세요” 14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역 맞이방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코레일 광주본부 임직원, 지역관광업체 종사자들이 K스마일 확산 및 남도관광 발전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최현일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관광공사 ‘K스마일’ 공동 추진

관광객 확대·친절문화 정착

한국관광공사와 광주시, 전남도가 관광객 확대·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K스마일’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광주시, 전남도는 14일 광주 송정역에서 K스마일 확산, 광주·전남 관광발전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식은 광주·전남 관광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각 기관은 관광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정창수 관광공사 사장,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협약식을 마치고

K스마일 캠페인 어귀띠를 두르고, 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며 ‘미소 캠페인’을 펼쳤다.

K스마일은 정부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정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서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를 슬로건으로 펼치는 친절 캠페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등 관광객이 물리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친절 운동을 펼쳐 친절문화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친절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가 남도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시·도민 모두 남도의 홍보대사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인레이: 노안리식/Kema Inlay를 이용한 시술/최초점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이즈를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수술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리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